

제41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3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출석 요구의 건
-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7
o 간사(윤건영) 인사	7
2.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출석 요구의 건	8
3.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간단히 인사말씀 부터 드리겠습니다.

제22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정훈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한편 비어 있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리를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여야가 함께 모여 상임위원회를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분권 그리고 안전 관리,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체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뼈대를 다루는 상임 위원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구해 내야 합니다. 젊은이는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에 정착한 젊은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지방답게 숨 쉬고 지방에 살아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과 같은 불행한 일은 이제 막아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 전반을 촘촘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 법률안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도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의결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의 일시를 결정하면 각 부처가 이를 따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첫 회의부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의 출석을 의결로써 요구하게 되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기관장 출석과 업무보고 요구에 충실히 응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는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첫 전체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윤건영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선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행안위 업무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제 막 적어 가는데 엄청 짧게 하셔 가지고 당황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희입니다.

제가 보좌진 때부터 행안위 보좌진을 오래 해서요 익숙한 곳에 다시 오게 돼서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기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소방관들께서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정말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안건이 없고 어느 하나 안 중요한 법안이 없습니다.

앞의 빙자리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했으며 이번 당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당장 나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고 싸우더라도 나와서 함께 싸우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복귀 그리고 함께 맞댈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저도 우리 모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앞자리를 보니까 참 답답하기 짹이 없습니다.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을 것인지 시급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국회가 빨리 가동을 해서 이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와서 함께 논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금 지체되고 있는 분권, 균형발전이 가시화되고 더 확대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양부남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일분일초 현재의 위험과 미래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의 빙자리를 보면서 진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지 묻고 싶고 유감입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법 처리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대남 오물풍선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가 신속히 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 안전, 지방분권, 공정한 선거관리 등 주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곳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에서 함께했던 신정훈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한 여러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들과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회의에 불출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방소멸 위기를 막아 내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국민의힘이 행안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 서원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이렇게 호기 있게 시작한 임기 첫 상임위가 이렇게 반쪽짜리로 시작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야 정치적 이유로 불참하시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늘 출석 요구가 되어 있었던 정부 부처마저 참석하지 않은 첫 행안위 회의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정부 부처의 불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대형 참사와 민생 문제에도 정략적 이유로 참가하지 않고 있는 여당 위원님들도 조속한 시일 안에 회의장에 나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태원 참사 159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 이런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행안부, 경찰청의 대응을 보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배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괴한으로부터 생명을 노린 피습을 받았지만 현장 보존도,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의 모습을 밖에서 보았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역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새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고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안위에서 지방자치와 국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재난이 아닌 재해로 몰아가고 책임자 꼬리 자르기를 하는 행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반도체의 중심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 출신입니다. 30년 가까이 공직을 했는데 저 건너편의 증인석에 오랫동안 앉

아 있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고 또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같은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주 보고 있는 건너편의 국힘 여당 위원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빨리 여당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안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과 함께 행안위에 소속돼서 활동을 했는데 22대 국회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간사로 내정되신 윤건영 위원님 그리고 우리 행안위 위원님 모든 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영등포갑의 채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행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방분권 또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신정훈 위원님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해서 기쁘고요. 하여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참사와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는 철저한 대응과 대책 그리고 법제도, 예산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지방정부 출신입니다. 단체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법제도와 특히 예산 문제,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대정신에 맞는, AI·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있어서 과거,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과거의 선거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고 그리고 투명한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향후에 무책임한 정부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타를 하고 미흡한 법제도는 보완하고 여야가 맞대고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열심히 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한병도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을 지역입니다.

제가 21대 전반기에 행안위를 했었고요. 22대 들어와서 다시 행안위로 돌아와서 다시 집안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제 기억으로 21대 때 저희 행안위가 법안 통과율 이런 게 가장 많이 하고 성과가 많았던 상임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22대 행안위도 가장 모범적인 행안위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춘생 위원님 또 용혜인 위원님,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춘생입니다.

우선 신정훈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의사국장으로, 원내 행정실장으로 굉장히 익숙한 상임위원회입니다만 제가 위원으로 출석해서 하는 회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사실 인사말을 준비해 왔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그 민심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부 여당의 첫 작품이 국회 보이콧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국회 보이콧은 저는 민심 보이콧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와서 민심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자당의 이해관계에 파묻혀서 멈춰 세우려고 국회의 발목을 잡아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들과 또 국회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이런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김순호 전 경찰국장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민주화 열사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추모연대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10개가 넘는 키워드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그 키워드들이 언론사 기자들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추모연대도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사실 공무상 기밀누설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국가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았고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를 탄압하는 데 일조했던 대가로 경찰이 된 김순호 씨는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더니 경찰국장에 이어서 경찰대학장으로 꽂길을 걸으면서 정년퇴임까지 했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민주 경찰을 향해서 나아가던 경찰이 독재 정부의 밀정 노릇을 대가로 승진한 김순호 1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에 대해 항의하는 민주화 열사분들의 유가족분들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다음 업무보고가 반드시 열려서 이 사안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총선 민의에 따라서 입법부 국회가, 자기 자신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 할 일들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지만 늘 열어 놓고 또 기다리고 또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한결같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데 결코 게을리하거나 멈춰 서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5시21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사는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건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고 국민의힘으로부터는 간사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영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윤건영) 인사

(15시22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윤건영 간사님으로부터 선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속에서 행안위가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의지를 잘 받아서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23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정부 부처의 상세한 업무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총 6개로서 업무보고 일시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로 하며 각 부처 기관장이 출석해서 기관별 업무현황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안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소속 기관장들도 다 안 나와 있고요. 국힘 위원들이 안 나온다고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 방송들을 모니터링은 하고 듣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오늘 의결하게 되는 행안위 업무보고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를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각 의원실에서 행안부 등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의원실별로 요청을 했는데 전혀 답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놀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까지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등의 기관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용혜인 위원 말씀하셨듯이 여러 현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운 상황이고요, 시간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은 되게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기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위원장님께 결해서 말씀드리면 각 의원실별로 보좌진들이 부처의 과장들, 국장들에게 대면보고 또는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협조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행위와도 같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엄중하게 부처 장관, 이하 기관장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삶과 또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위원회, 단 한순간도 멈춰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회가 막 개원해서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되는데 여전히 정부 관계 공무원들 또 장차관들이 불출석을 계속한다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자기 자신들의 존립 의무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전달해서 다음 회의부터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안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지만 보좌진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는 행안위, 그 소속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에 앞서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일당의, 어떠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공복입니다. 지금 보좌진 업무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공복이다, 정권의 어떠한 하수인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꼭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기관 출석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앞에 비어 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치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오른쪽에 있는 비어 있는 자리는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치행위를 중단하시고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혹시 추가적인 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정도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음에 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고 업무를 또 전달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고 정치를 떠나서 365일 1분 1초도 멈춰 세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부 당국에 또 각 부처의 장차관들에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으므로, 그러면 각 부처 기관장이 출석해 서……

잠깐만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제2항과 5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128조 1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성희 모경종 박정현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신문근

전문위원 이옥순